

산티아고 순례길 자유를 찾아 걷다



기적의 순례와 여행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의 열두 제자였던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약 800km에 이르는 길이다.

1987년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출간,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신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일생에 한번은 걷고 싶은 길로 꼽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아프리카 오지와 킬리만자로 트레킹 등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금선씨가 산티아고 순례길과 주변국을 여행한 46일의 기록을

수피아여고 퇴직교사 정금선씨 '기적의 순례와 여행' 지천명에 시작한 오지 모험·트레킹 '인생의 전환점'

담은 '기적의 순례와 여행'을 출간했다. 광주수피아여고에서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매년 방학 때마다 아프리카, 인도, 에티오피아, 아이슬란드, 러시아, 멕시코, 쿠바 등을 찾아 모험과 도전을 즐겼다. 50살 되던 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50살 되던 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자 직장과 가정에 매여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하기 전에 어디든 한번 떠나보자는 생각이 떠날 여행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1년에 2달, 방학 때면 여행을 떠난다. 그녀는 2018년 8월 31일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되면서 곧바로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없었다. 말은 정금선씨에게도 해당이 됐다. 그녀는 퇴직 직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정씨는 산티아고행을 포기하지 않았

다. 수술 이후 끊임없는 재활과 꾸준한 체력단련 후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46일 동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3개국 여행길에 올랐다.

이 책은 혼자 처음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손쉽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세하고 알기쉽게 담았다. 사진만으로도 순례길이 주는 자유와 평안함, 그리고 조금 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는 듯 생생하다.

정씨는 "홀로 세계여행이나 배낭여행을 떠나는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행을 떠나는지 궁금해하거나 부러워하는 많은 이들을 봤다. 그들을 위해 최대한 여행 과정을 세세하게 담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어장벽 등을 고민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과 용기와 호기심을 갖고 세계여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정금선씨는 '기적의 순례와 여행'을 통해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담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의 동쪽에 있는 돌로미테 산맥을 트레킹하는 정금선씨. /작가 제공

세책 나왔어요

◇벤저민레이=대서양 노예무역상들의 해상대학살을 고발한 최초의 인물이자 계급·인종·성별·환경의식을 통합한 혁명적 세계관을 가진 '벤저민 레이'의 일대기. 노예제 철폐를 주장한 그의 인생을 조명한다. 갈무리. 304쪽.

◇어른들=노르웨이 출신 작가 마리오 베르의 첫 장편소설. 여름을 맞아 휴가로 별장에 간 자매의 모습을 통해 가족 간에 느낄 수 있는 내밀한 감정의 갈등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묘사한다. 자음과모음. 212쪽.

◇첫 달부터 매출 나는 구매대행=자신이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지 선택으로 진단하고, 1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알려준다. 구매대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탈인. 256쪽.

◇딱한 번만이라도=만화가이자 에세이스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마스다미리의 장편소설.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날' 뿐인 자매 히나코와 야요이가 각자 일탈을 경험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소미미디어. 192쪽.

◇90일 밤의 미술관=이탈리아=이탈리아 미술관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국가 공인 가이드들이 9개 도시 미술관과 성당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동양북스. 516쪽.

다른듯 비슷한 지구촌 놀이방법



김재일 박사와 함께하는 세계전래놀이

베트남 파이·일본 카쿠렌보 등 소개 다른 문화·전통·사회 경험 이해 증진

이로, 팬이를 줄로 감아서 돌리거나 상대의 팬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돌아가는 팬이가 승자가 되며,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팽이 치기와 비슷하다.

일본의 카쿠렌보는 친구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놀이로, 우리나라의 숨바꼭질과 같다.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승패를 2명으로 정해 더 많은 사람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크기가 다른 다양한 모양의 대나무를 넘어뜨리는 놀이인 필리핀의 밤모피트, 돈을 거는 내기놀이가 주를 이루는 캄보디아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책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았으면 한다는 생각

에서 이번 책을 출간했다는 김재일 박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나라가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라도 놀면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는 놀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여러나라의 전래놀이를 즐기며 우리나라의 전래놀이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더욱더 창의적으로 우리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모색했으면 한다"며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러 나라의 전래놀이를 즐겁게 맛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이상문학상 대상에 손보미 '불장난'

제45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손보미 작가(42·사진)의 소설 '불장난'이 선정됐다.

'불장난'은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겪는 정서적 불안과 내적 갈등을 통과리의 서사적 틀 속에서 치밀하게 그려 낸 일종의 성장 소설이다. 심사위원회는 작품 속 화자의 절제된 감정 표현과 섬세한 내면 묘사에 주목하며 "서사의 긴장을 살려내는 소설적 장치의 상징성과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 작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렬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을 쓰기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란 생각을 했던 것도 같다"며 "그저 오늘도 쓰고, 내일은 더 많이 쓰는 것이 내가 소설에게 부릴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사치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교 시절, 마음을 열렬하게 했던 은희경의 소설 '아내의 상자'와 함께



이상문학상 수상작 목록에 올라 기쁘다"고 덧붙였다. 1980년 서울 출생인 손보미 작가는 2009년 '21세기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 '디어 랍프 로렌', 중편 '우연의 신', 소설집 '그들에게 린디합을',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등을 펴냈다.

한편 올해 이상문학상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작에 대한 전문가 추천 방식으로 이뤄진 예심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지난해 1~12월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수합·정리하고 전 작품을 대상으로 공동 심사를 통해 본심 후보작을 선정했다. /오지현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2022 Vol.74 01

커버스토리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시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지역특집
1004섬 공익화 사업

한국의 명장
한국의 매사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커버스토리

시·군 등 호남권 혁신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사업권 대표 전시장 우등내부 직원과 소통... 민·관·학·연 핵심 전략적 마케팅지역연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별 초대석] 김원이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민주교육 확대교과교육과정 확대 2025년 안착·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재 시의원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진

[이달의 도서] 한강 작 '작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본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향저우아시안게임·카타르월드컵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한국의 명장] 매사냥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공과 매가 함께하는 함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고쳐

안수기의 건강백세
밤 내거는다

지역특집 1004섬 공익화 사업
사계절 꽃피는 힐링성 '신안군'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약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매나일' 취향 지역·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신뢰·친절·맛·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